

동해바다 보며 겨울 배웅...하늘 위 걸으며 봄 마중



망양정보다 경치가 더 좋다고 하는 울진 망양휴게소에서 바라본 해안풍경.

동해안 7번 국도로 떠나는 울진 여행

경북

겨울바다를 동경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참으로 묘하다. 막상 가면 10분이 채 못 돼 오들오들 떨며 "춥다, 따뜻한 데 들어가자"고 할 것을 굳이 몇 시간을 이동해 바다로 가느라 말이다. 라는 합리적 연사에 비 합리적인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포털의 로드맵으로만 봐도 눈이 호강하는 바닷길은 합리적인 이들의 몫으로 돌린다. 단 5분을 불지연정 바다가 주는 영감이 맨눈을 비롯한 오감으로만 담기는 이들은 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바다다.

겨울바다를 생각할 때면 늘 고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고독을 씹고, 여유를 만끽하고, 바다 앞에서 인생을 곱씹는다. 는 자아성찰의 시간은 겨울에 맡긴다. 마침 대계를와 작작 씹을 카니발의 시간이 짹짹 다가온다. 겨울의 끝자락에 동해안 7번 국도의 중심, 울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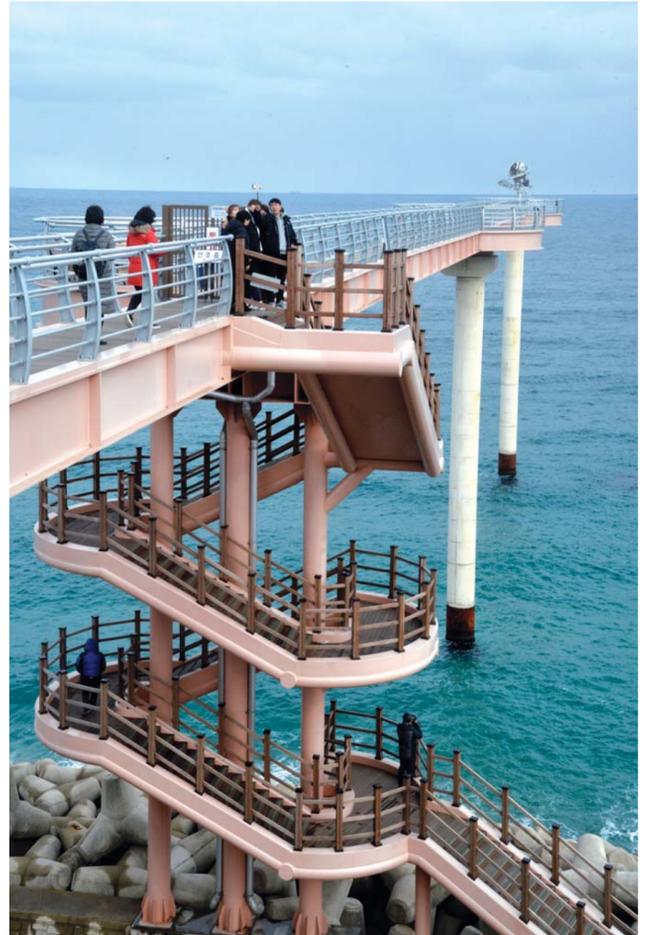
바다 위 20m 산책로 등기산 스카이워크 '아찔'
울진 대계 성지 후포항 28일~3월 3일 대계축제
죽변항 물곰탕·후포항 아구지리탕 '해장 대전'



지난해 울진대계축제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 <울진군 제공>



후포항 아구지리탕.



관광객들이 바다 위 20m 높이에 세운 인공 산책로인 울진 등기산 스카이워크에서 동해의 시원한 파도소리를 들으며 봄마중을 하고 있다.

◇ 울진의 7번 국도

울진의 북쪽 끝 북면 나곡리에 있는 나곡바다낚시공원이 시작점이다. 바다낚시 체험을 위해 조성된 공원이지만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조성돼 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잔교와 해안절벽이 조화를 이뤄 이색적인 풍경이다.

여기서 20여 분을 달려 내려가면 망양정이다. 관광팔경의 하나로 꼽힌 망양정은 겸재 정선의 망양정도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 망양정도의 망양정과 현재의 망양정은 서로 다른 존재다. 현재 있는 망양정은 1860년에 옮겨온 것으로 모자라 2005년 새로 건립된 것이다. 하지만 동해바다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야 하나만큼은 탁월하다.

망양정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7번 국도를 타고 울진 내륙으로 들어가거나, 해안도로인 917번 지방도를 타고 내려가느냐의 길목이다. 7번 국도로 간다면 매화마을을 놓쳐선 안 된다. 지난해부터 '공포의 외인구단' 등 만화가 이현세의 작품이 점령한 곳이다. 까지 오해성과 마동탁, 엄지의 얼굴에 잠시 1980년대로 돌아간다.

'... 우리는 매화종합고등학교로 갔다.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려면 먼저 교무실로 가서 허락을 받아야 했다. 자전거로 7번 국도를 여행하는 학생들이라고 소개하면, 대부분의 선생들은 흔쾌히 허락했다...' (김연수 '7번국도 Revisited' 중)

2008년 폐교된 매화종합고는 현재의 매화중학교다. 매화중학교 담벼락은 지금도 이

현세의 그림들로 채워지고 있다.

매화마을에서 벗어나 10분 남짓 달리면 다시 해안을 접한 국도다. 울진 사람들이 망양정보다 경치가 더 좋다고 하는 망양휴게소가 있다. 왕복 2차로의 옛 7번 국도도 만난다. 반값이 그지없는데 기억 속 그 모습이 아니다. 팬스레 미안하고 안타깝다. 있었던 옛 기억만 하염없이 재생된다.

◇ 딱 한 군데만 꼽는다면 후포항
시간이 없어 울진의 단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후포항이다. 울진대계의 성지인 공판장이 있고 여객선 터미널이 있고 등기산공원, 그리고 스카이워크가 있다. 백년손님 벽화마을도 끼워넣을 수 있다. 힐링코스도 단연 으뜸은 등기산공원이다. 오래 볼 건 아니다. 우리 동네 말로 '이래 함 스욱' 돌려보면 된다. 후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동해 바다 망망대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이 나온다. 세계 유명 등대 5개가 미니어처로서 있다. 후포 등대는 진짜다. 가볍게 산책하는 데 30분이면 충분하다.

등기산공원을 걷다 왕돌초라는 이름을 접한다. 이곳에선 꽤 알려진 지명이다. 동해는 불과 100m만 나가도 심해인데 울진 후포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수심 3~25m의 해저 평안이 있다니. 고교시절 한국지리 좀 했다는 이들도 처음 듣는다면 당황하는 지명이다. 울진 사람들은 다 안다는 '왕돌초(王多礁)'다.

수중 금강산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울진군은 이곳을 '동해의 심장'이라고 홍보한다. 3개의 거대한 수중 봉우리를 갖고 남북으로 긴 형상을 하고 있다. 남북 54

km, 동서 21km로 여의도 면적의 10배다. 울진은 대계를 홍보할 때 왕돌초에서 잡은 걸 강조한다. 해류가 빨라지는 곳에서 자란 대계가 만큼 어느 대계보다 굵기도 굵고 살하다는 논리다.

관광지로 소개할 수는 없으나 바다낚시꾼들과 스카이다이버 사이에선 제법 알려진 곳이다.

◇ 스카이워크, 후포 명물로 추가
울진이 홍보 전선에 내세운 대표 모델은 남서방네 처가 가족들이다. 2015년 SBS 예능프로그램 '백년손님'에 출연했던 피부과 전문의 남재현 씨 처가댁이 울진 후포다. 남재현 씨도 본인 이름보다 '남서방'으로 더 알려졌다. 남서방네 처가집은 벽화마을로 바뀌어 관광코스가 됐다. 마침 등기산공원과도 가깝다.

등기산공원에선 42m 길이 출렁다리가 스카이워크로 연결해 준다. 계단으로 스카이라이프에 오르는 길도 있다.

스카이워크는 등기산 스카이워크라는 정식 명칭보다 후포 스카이워크로 불린다. 바다 위 20m 높이에 세운 인공 산책로다. 바다 쪽으로 난 57m 구간은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돼 있다. 유리 아래 한 프레임으로 갯바위도 간혀 들어온다. 숲처럼 생긴 절리다. 가까이 가서 오를 수 있다.

◇ 대계 원산지 논쟁
울진이 세간에 알려진 일등공신은 영덕과 대계 원조 싸움이었다. 울진 후포항과 영덕 축산항은 20km가 채 안 되는 직선거리다. 국경과 행정구역이 없는 대계 입장에서 보면 어차구니없는 일이다.

사실 동해안 대계의 최대 집산지는 포항

구룡포항이다. 요즘 말로 영덕과 울진의 '뼈를 때리는' 팩트다. 그러나 아옹다옹 하는 이들의 다툼은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냈다. 2월 말에 울진이, 3월 말에 영덕이 대계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그리모는 다. 기선 제압에 나서는 울진대계축제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영덕대계축제는 3월 21일부터 24일까지다.

울진대계축제는 후포항 왕돌초광장 일대를 무대로 삼는다. '월송 큰 줄 당기기' 등 전통 민속놀이와 대계춤 플래시몹, 대계춤경연대회, 거울이 대계원조마를 풍어해원구 등 공연이 준비돼 있다.

◇ 후루룩 미식의 시간
죽변항에서 후포항까지 울진의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면 '삼시세끼'란 말이 무소용이다. 미식가들을 자극하는 울진의 별미는 각각각색이다. '맛있는 녀석들'의 하루 열 끼 발언이 이곳에선 제법 진지하다.

너무도 많이 알려져 말하자니 입만 아픈 대계 소개는 생략하자. 대계는 설이 지나면서부터 살이 차기 시작해 3월까지가 한창 맛있는 때다. 신선함이 최고의 요리법이다.

울진 대표 어항 두 곳에는 해장에 유익한 종목이 하나씩 명성을 떨친다. 죽변항의 물곰탕과 후포항의 아구지리탕이다. 해장에서만큼은 어느 쪽이 '좋아요'를 더 많이 받을지 승부를 내기 어렵다.

죽변항 물곰탕은 폼치라는 어종으로 끓여낸다. 상인이 두 팔로 번쩍 들어야 할 만큼 크다. 박하게 못 생겨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생김새다. 순두부처럼 흐물흐물하게 입에서 녹는 반전 식감에 더 있을 수 없다.



울진 매화마을 담벽에는 만화가 이현세의 작품들이 마을을 휘감고 있다.

묵은 김치와 무를 썰어넣고 끓여낸다. 쓰린 속을 편안히 잠재우는 마력이다. 조선시대부터 해장으로 명함을 내민 바 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해점어'라 이름붙였는데 폼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살이 아주 연하고 뼈도 연한데 맛은 싱겁지만 술병을 잘 고친다고 기록해줬다.

장모님에 이어 사위가 운영한다는 가게가 유명하다. 물곰탕 1만 3000원이다.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까지 저녁 준비 시간으로 영업을 잠시 멈춘다.

후포항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구지리탕으로 울진 현지 주민들의 발길을 끄는 곳이 있다. 팬션을 겸하는 가게다. 메

뉴판에는 그냥 아구탕이라 쓰여 있다. 아구지리로 달라고 하면 허연 국물이 된 게 나온다. 특대, 대, 중, 소 네 가지 크기 중에서 4만원 짜리(소)면 남자 성인 2명이 배 타지게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기막히는 육수다. 된장콩이 국물에 섞여 있다. 육수 제조법을 몰으니 안 가르쳐준다. 집된장을 비롯해 대계살 등 여러 재료를 갈아 넣었다고만 알려준다. 주변에 앉아 먹던 이들이 저마다 기묘한 탄성을 지른다. 해장되는 소리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매일신문 김태진 기자 novel@imaeil.com /사진=매일신문 이채근 기자 mincho@



新韓道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65,000 원 (VAT포함)

2019년 3월 27일 (수)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2

신양파크호텔
봄맞이 디너쇼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룰케일 증명)

2019 Dinner Show
박상민
7월 19일

ShinYang Park Hotel
SUNSHINE HOTEL & RESORT CLUB